



【사진=MBC 뉴스데스크 캡처】

### MBC 뉴스데스크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하루'

#### 삶과 죽음 최전선 지키는 간호사들 회복한 환자들 볼 때 보람 느껴 힘든 근무환경 때문에 이직률 높아

“예전에는 딸이 간호사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외상센터 간호사 하고 싶다면 적극 지지해줄 것 같아요.”  
삶과 죽음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권역외상센터 간호사들의 하루가 지상과 뉴스를 통해 알려졌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 15일 방송에서 ‘엠키로그: 내 생애 첫 인터뷰’ 코너를 통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간호사들의 일과 삶을 소개했다.  
뉴스는 병원 옥상에 도착한 닥터헬기에서 외상센터로 응급환

자를 이동시키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해 간박하게 돌아가는 하루를 다뤘다. 잠깐의 여유시간을 쪼개 외상센터 6년차 김다혜 간호사와 김선미 수간호사를 인터뷰했다.  
김다혜 간호사는 “환자들이 두세 명씩 오고 나면 물 한잔 못 먹을 정도로,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자가 외상센터에서 치료받고 무사히 퇴원했을 때는 “저희가 응급처치를 잘했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고, 정말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다혜 간호사는 꿈속에서 하

늘을 보는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눈앞에서 떨어져서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한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권역외상센터가 설립된 이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줄었다. 하지만 힘든 근무환경 탓에 간호사 이직률이 높다.  
김선미 수간호사는 “그만두지 말라고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관건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그레드 외상센터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환자 때문이다. “환자가 회복한 후 저희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다시 열심히 더 해봐야겠구나... 왜냐하면 환자는 계속 올 거니까요.”  
김선미 수간호사는 “예전에는 딸이 간호사 하겠다고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지금은 외상센터 간호사 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cc@

### 부산시간호사회 '함께 걷는 등굣길' 후원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지원)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2월 19일 기탁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전개하고 있는 ‘함께 걷는 등굣길’ 신학기 지원사업에 써달라며 간호사들의 마음을 담은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 모금에는 부산 지역 병원과 간호대학 등이 참여했다.  
후원금은 부산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교재, 가방, 운동화, 교복 등 신학기 용품 구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부산시간호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희망찬 출발을 돕기 위해 2008년부터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진숙 기자 jslcc@

### 6·25전쟁 파견 노르웨이 간호사 타계

#### 게르드 셈,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에서 활약



6·25전쟁 때 한국에 파견됐던 노르웨이 간호사 게르드 셈(Gerd Semb)이 100세를 일기로 지난 2월 23일 오슬로에서 타계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게르드 셈 간호사의 유가족에게 조의문을 보냈다.  
게르드 셈 간호사는 6·25전쟁 때 노르웨이 파견한 육군 이동외과병원 ‘노르매쉬’에서 활약했던 인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한 여러 전쟁터에 파견돼 활종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6월 12일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했을 때 6·25전쟁 참전용사들을 만난 자리에 초청됐다.  
노르매쉬(NORMASH)는 1951년 7월 19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1954년 11월 10일까지 한국에 남아 활약했으며, 9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다.  
게르드 셈 간호사를 수차례 인터뷰했던 얀-투레 로케스(Jan-Thore Lockertsen)은 “그녀는 간호사로서 매우 활동적이고 충만한 삶을 살았으며, 환자와 어린이를 위한 돌봄정신이 특별했다”면서 “생생한 기억력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려줬고, 사진은 물론 티켓·영수증 등 소소한 자료들도 잘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로케스는 6·25전쟁에 파견된 노르웨이 간호사들에 대해 연구한 전문가다.  
대한간호협회는 유가족에게 보낸 조의문을 통해 “한국의 간호사들을 대표해 게르드 셈 간호사님의 타계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6·25전쟁 중에 노르매쉬에서 일하며 간호사로서 그녀가 보여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병사와 환자들을 돌본 노고에 최고의 존경과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게르드 셈 간호사의 타계 소식을 언론과 트위터 등을 통해 알렸으며, 간호사들이 존경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 간협, 노르웨이와 간호교류 추진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한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북유럽간호사연맹 회원국들과 교류의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후 소속도의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왔으며, 앞으로 간호 학술 및 문화 교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 주한노르웨이대사, 트위터에 추모 글 올려

프로데 수올베르그(Frode Solberg) 주한노르웨이대사가 게르드 셈 간호사를 추모하는 글을 3월 1일 트위터에 올렸다.  
수올베르그 대사는 “노르매쉬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게르드 셈이 지난주 타계했다”며 “그녀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국빈 방문 중 만난 6·25전쟁 참전용사를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6·25전쟁 중 그녀의 기여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추모했다.  
유엔군사령부도 수올베르그 대사의 글을 리트윗하며 추모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간호사관생도 힘찬 출발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정의숙 장군)는 제64기 입학식을 2월 20일 개최했다.  
올해 입학생도는 91명으로 여자 82명(외국군 수탁생도 2명 포함)과 남자 9명이다. 44.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인재들이다.  
이들은 지난 1월 28일 예비생도로 입소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당히 간호사관생도로서 영예로운 입학식을 맞이했다.  
권혁준 생도는 “3사관학교 생도인 형의 뒤를 이어 생도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책임감 있는 간호장교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의숙 학교장은 축사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며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함양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간호사관생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생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전공 과목과 군사학 등을 배우게 되며, 전문성과 강인한 정신력을 겸비해 미래 우리 군과 국민이 신뢰하는 세계 최고의 간호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한편 학교는 입학식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국방홍보원(유튜브, 페이스북) SNS에 실시간 현장을 생중계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 군산간호대 역량기반 교육과정 워크숍

군산간호대(총장 김순자)는 교학처 주관으로 대학의 겸임·초빙 교원과 강사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학습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군산간호대 현황,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 개요 및 적용방안, 프로그램 학습성과와의 연계성,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등으로 진행됐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에 관한 오리엔테이션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학의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공유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고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고미혜 교학처장은 “우리 대학 학생 교육을 함께 책임져주시는 교수님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면서 “핵심역량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안내  
대한간호협회 KNA에듀센터  
edu.kna.or.kr

### 전국 수유시설 대부분 환경 권고기준 준수

전국 수유시설 중 대부분이 조도, 온도, 소음 등 환경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실 내 비치 물품의 청결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해 실시한 2019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유시설 검색 홈페이지에 등록된 2841개 수유시설을 대상으로 수유실 내 비치물 비치 및 청결상태, 환경상태, 이용현황 등을 조사했다.  
전국에 설치된 수유시설은 △공중(다중)시설= 852개(30.0%) △공공경사= 673개(23.7%) △공공기관= 646개(22.7%) △교통시설= 508개(17.9%) △민간기업=

133개(4.7%) △학교= 29개(1.0%)로 나타났다.  
이중 아파도 이용 가능한 가족수유실은 2283개(80.4%)로 전년 대비 17.3% 증가했다. 모유수유 공간을 별도로 설치한 곳은 1831개(64.4%)였다.  
또한 1일 평균 이용자가 10명 이하인 곳은 2114개(74.4%)로 전년 대비 8% 줄어들었다. 반면 11명 이상인 곳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727개(25.6%)로 조사됐다.  
수유시설 관리 주기는 대부분(2800개, 98.6%)이 1일 1회 이상이었으며, 1일 2회 이상도 2480개(87.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유시설에서 환경 권고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조도

(권고기준 60~150lux)는 2629개(92.5%), 온도(권고기준 여름 26~28℃, 겨울 18~22℃)는 2760개(97.1%), 습도(권고기준 50~55%)는 2524개(88.8%), 소음(권고기준 50dB 이하)은 2764개(97.3%)에서 기준을 충족했으며, 환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 곳도 2619개(92.2%)였다.  
수유실 필수 물품인 소파는 2750개(96.8%), 기저귀교환대(아기침대 포함)는 2676개(94.2%)에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손소독제(1454개, 51.2%)와 탁자(1349개, 47.5%)는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유실 내 비치 물품의 청결상태 및 바닥의 오염도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적정(99.4%)한 것으로 조사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진숙 기자 jslcc@

# 32년 전통 명문 학원 대방열림고시학원

## 최다 합격자 + 입소문, 합격생이 추천하는 기술직 명문 학원

- 기술직 공무원
- 간호직
- 보건직
- 보건진료직
- 의료기술직
- 국가 면허시험
- 간호사 국가고시
- 위생사
- 보건교사 임용고시



매월 초 개강 / 수시 등록 가능 / 학원강의 연중 순환식 진행  
기본 이론반 > 심화반 > 단계별 문제풀이반 (기출·단원·실전 모의고사)

대방열림고시학원 바로가기 QR코드  
NAVER 진통카페 바로가기 QR코드

상담문의 02-823-47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8길 4 신한헤스티아 2층 (영등포역 5번출구)

# 보건교사

## 김희영 · 오정화 교수의 소문난 명강의!!

김희영 교수: 지역사회간호, 학교보건, 정신간호  
오정화 교수: 성인간호, 아동간호, 모성간호

- 1~6월: 기본이론 + 기출문제
- 7~8월: 영역별 문제풀이
- 10월: 동형모의고사

- 간호직공무원, 간호사국가고시에서 검증받은 전문교수진
- 최신 경향 집중 분석, 제대로 된 강의준비
- 10년 이상의 현장강의 경력 [현재 진행중]
- 경쟁교재 및 강의의 취약점을 철저히 분석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 / 수강료

보건교사스터디 카페 바로가기

db 대방열림고시학원 상담문의 02-823-4700